

불자 세상보기



우승택 ST 테크연구소 대표이사 승실대 PB학과 교수

우리 불교에 전해지는 여러 가르침 중에 사자와 개의 비유가 있다. 개에게 휴멍이를 던지면 개는 그 휴멍이를 쫓아가서 물어뜯는다고 한다. 반면에 사자에게 휴멍이를 던지면 사자는 휴멍이를 던진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 사람을 문다. 최근 국민, 농협, 롯데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사회가 매우 시끄럽다.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들어야 하는 것인가? 카드사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그 누구에게 달려들어야 하는 것인가? 항상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놀래고 화를 내고 카드사에 전화하고 카드 해지를 하기도 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그게 어제 오늘 일이나? 이미 다 도둑 맞고, 팔아 먹고, 유출돼 당하고 산지가 언제인데 라면서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 국민의 일반적

카드 정보 유출, 남 탓 말고 내 탓도

정보부터 민감한 신용 정보까지 모두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는 있지만 국민의 불신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되게 하는 1등 주범은 정부나 카드사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국회가 아니다. 이러한 사태의 제일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그 국민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범인이 있다. 왜 그런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 불자들은 <육조단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법신의 나'와 '화신의 나'와 '보신·영신의 나'가 있어 '자성 3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일체지의 우주 법계가 나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계의 살림살이를 보면 죄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카드 사태이후 가장 놀라고 가슴 아프고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픈 순서대로 꼽으려면 1번이 국민이고, 2번이 카드사 사장이고, 3번이 대통령정도

될 것이다. 카드 사태로 가장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국민이라면 국민이 환자라는 것이다. 그 동안 처신을 잘못해서 몸과 마음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는 '2차 피해는 한 건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보면 최소한의 문제인식도 못하는 것 같다. 문제인식을 못하는데 무슨 책임의식이 있겠는가. 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는 부처님의 두 번째 화살의 비유처럼 우리만 손해를 더 보게 된다는 뜻이다. 1차적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카드 사용자의 가슴이 놀라고 화나고 아픈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카드 사용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자기반성이 우선이다. 이후 '국민'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범인을 찾아서 처벌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국민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세워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제

원이 튼튼해져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번호 등을 점차 전부 새로운 포맷팅을 해서 새로운 정보유동체계를 만들어 화폐개혁으로 과거의 검은 돈이 유통되지 못하게 했듯이 이미 유통된 정보의 거래를 차단하고, 과거의 정보를 거래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와 카드사를 비난하면서도, 현찰을 가진 것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 너무나 오랫동안 카드회사에서 가불해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그 언저리를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부자집 소자녀처럼 아니면 중세의 농노계급처럼 카드사를 욕할 수도 없고 거래를 끊고 현찰을 사용할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다. 이러한 결로 들어나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속 사태까지를 직시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푼다면 그들이 바로 보살들이고 화엄성종일 것이다. 험악한 인생살이 그리고 힘든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신장님이 화현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社說

승가 대학 특전, 시선끌기보다 내실을

최근 5년 동안 한국불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곳은 승가교육 환경이다.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지향한 조계종 교육원은 기존 강원을 승가대학으로 변경하고 표준교과과정을 만들어 학인 스님들에게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승가대학들이 2014년 신학기를 맞아 학인 스님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각종 장학혜택은 물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아이패드도 지급하거나 해외 탐방 지원, 상급 학교 진학 등 특전을 앞 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귀족계 수지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가대학 재학 기간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건 대학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졸업 후 공부할 이어가길 희망하는 스님들을 위해 해외 유수 대학과 연계해 진학을

돕는 학교도 있다. 이 같이 전국 승가대학들이 특전을 제공하면서까지 신·편입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출가자 감소로 학인 스님들의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승가대학 운영령이 2009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낙후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들은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다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면학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은 '시선끌기'용 특전보다는 교육의 질로 승가교육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변화하는 승가교육이 가져다 줄 미래 한국불교에 거는 기대는 크다.

다문화 가정 보듬는 불교계 행사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 시대를 맞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20만 가구를 웃돌며 이들의 자녀만 1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 90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픔이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이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편향적 시각으로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과 차별에 명되고, 부모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자라나는 자녀들은 고개를 떨군다. 몇몇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들이 왜 위축되어야 하는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계가 새해를 맞아 1월 2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박수를 받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이등병의 편지'로 유명한 김현성과 인디밴드 '레드로우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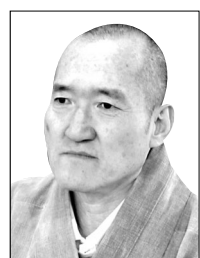
포크록 밴드 '레'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서포터즈들의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가수 김현성 씨는 관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재'에 가사를 넣은 곡과 '무소유의 노래(법정)' '이등병의 편지' '나룻배와 행인(한운운)'를 감미로운 기타선율과 함께 선보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회의 레퍼토리아 워드 간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장을 우리 불교계에서 마련했다는 것도 등을 두드려 줄만하다. 특히 설날이 다가오면 각자의 고향 생각이 나게 마련인데, 음악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생시에도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고 이들을 깨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한다.

발언대

자성과 해신결사 3주년에 부처

지난 1월 26일로 조계종 자성과 해신 결사가 3주년을 맞았다. 이에 결사추진본부는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를 기조로 '붓다로 살자'를 실천 의지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3주년 맞는 결사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우리의 문제 무엇인지 진단부터



법승스님 불교생명윤리학회 대표

자성과 해신은 한마디로 승려의 일상과 종단의 운영체계를 '본래의 의미'대로 회복해 가는 불사다.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다 함은 승가가 세상에 지혜와 덕을 베푸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고 세상의 기득권과 가진 자들로 하여금 무소유와 보살행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다. 자성과 해신결사는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위상과 미래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구호와 깃발만을 세우는 자세에서 벗어나 상층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급한 것은 진행 주체의 어슬픈 결론과 행동 이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진단하는 일이다.

불자 지식인들 결사 동참나서야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윤불타관이다.

자성과 해신 결사의 요체는 '붓다로 살자'에 있다. 각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불타관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로 살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

이제는 '붓다로 살자'라는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종단 내부에 머물지 말고 대중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결사가 돼야 한다. 불자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결사 운동에 동참해줄 것도 당부하고 싶다. 불자 지식인들은 무관심하거나 침묵 중이다. 이는 한국불교를 썩먹는 일이다. 결사가 문제가 있다면 반대의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

사회 속 불교 고유영역 확대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사회에는 종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조계종이 결사 3주년을 맞아 '사찰과 함께 사회속으로'라는 기조를 내걸며 사회적 활동

에 의미를 사회적 영역들이 분명 있다. 이를테면 환경, 인권, 국제, 자연 등으로 불교적 관심을 확대하면서 불교 나름의 고유 영역을 찾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이 의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자 또는 또한 헌신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불교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자성과 해신 결사추진본부가 '사찰과 함께 사회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4년 헌찬 출발을 다짐했다. 자성과 해신결사본부가 만들어진 배경은 승려도박사건이라는 내부 문제로부터 기

인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초기 야단법석에서 제기된 내부 정화에 대한 요구에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자성과 해신 결사추진본부의 대사회적 노력 덕분에 종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따라올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선 사찰에서 사부대중의 변화와 창조적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출연발담 www.hyunbul.com 실시간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출연발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